

총무원장 스님 축사

진불장 혜성 대종사의 산수(傘壽)를 맞아 문도들이 원력을 모아 <인생 80년 출가 60년>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정화, 수행, 교육, 복지, 불사 등 다방면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혜성 대종사의 삶과 수행의 진면목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대종사의 법향(法香)을 잊지 않으려는 문도들은 물론 사부대중에게도 삶의 지침을 담은 소중한 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종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가시발길을 감내한 대종사의 삶은 후학들에게 지남(指南)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종사께서는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정화불사에 진력하신 청담 대종사를 시봉하며 종단의 초석(礎石)을 놓는데 공헌하였습니다. 당시에 열악한 종단의 재정을 책임지는 소임을 맡아 효봉, 동산, 청담, 금오, 경산 스님 등 선지식과 사부대중을 외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자의 위의(威儀)를 지키며 4년간 총무원 사회부장 소임을 무탈하게 역임하고, 6년 동안 중앙승가대 학장을 맡아 정규대학으로 인가받는 등, 종단발전과 인재불사에 헌신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1950~60년대 선대(先代)의 위법망구(爲法忘軀) 정신으로 성취를 이룬 불교정화불사는 종단의 주춧돌을 놓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올렸기에 지금의 한국불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근간으로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여 지금은 불자와 국민의 귀의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혜성 대종사는 불교의 사회적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청담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 혜명보육원 산하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양로원, 청담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널리 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교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을 때였기에 시대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한 것이었으며, 교육과 복지가 한국불교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선구자적

인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불교정화의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는 100년 앞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불자와 국민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곳에 눈을 돌려 숭선수범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종사의 노력과 헌신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우리 종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옳곧게 제시하고 실천하셨기에 종단적으로도 고마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님은 1980년 10·27법난의 고초를 겪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역사를 바로 잡는데 헌신하셨고, 종단도 명예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결실을 이루어 내는데 항상 중심에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진정한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인생 80년, 출가 60년>의 출간과 대종사 품서 기념법회를 경하 드리며, 청담 대종사의 원력을 계승한 혜성 대종사께서 법체(法體) 강건(剛健)하여 문도들은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 나아가 사바세계에 밝은 등불을 밝혀 주시길 기원합니다.

2560(2016)년 7월 1일